

“상어는 우리가 진화해 온 세계의 일부다” 사회 생물학 창시자의 ‘생명애착’ 에세이



**우리는 지금도
야생을 산다**

에드워드 윌슨 지음

푸른 심해를 헤엄치는 상어는 한여름 극장가 단골손님이기도 하다. 4억년 전 대변기 이래로 번성해온 상어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다. 특히 종 자체의 다양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물의 다양성과 흥망성쇠의 궤적을 들여다보게끔 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 지성이자 개미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에드워드 윌슨의 생명관련 에세이를 엄선한 책이 출간됐다. 최재천 이화여대 예과 과학부 석좌교수와 김길원 인천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번역한 ‘우리는 지금도 야생을 산다’는 사회 생물학 창시자의 지성과 영감이 집약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드워드 윌슨에 따르면 상어들은 우리가 진화해 온 세계의 일부이고 그렇게 때문에 우리의 일부이다. 그들은 인간에게 가장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불안과 공포의 거울로서 우리 문화에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성, 인간 분상, 2부 ‘본성의 탐구’, 그리고 3부 ‘자연의 파노라마’라는 큰 주제를 토대로 에드워드 윌슨의 사려 깊은 에세이들이 엮여 있다. 에세이 가운데 ‘상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전갈류 못지않게 지구의 거주자로서 수적인 열세를 유지해왔던 상어가 위협에 처하게 되는 과정을 되짚고 있다. ‘개미 사회의 위대한 성공’과 ‘개미들의 만찬’에서는 개미 연구자로 명성을 떨친 저자의 세세한 면모가 드러워져 있다.

일반인들의 눈길을 끄는 금은 사회생물학에 대한 오해를 다룬 ‘이타주의와 공격성’이다. 유전자가 명령하는 것은 특정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며, 다양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특정 행동이 발달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인간 본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에 대한 애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가?’를 통해 생태계의 현명한 이용을 강조한다.

번역을 한 최재천 교수는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마치 자연의 일부가 아닌 양 살아왔다. ‘네이처’를 찾아 나서는 여행은 생물학자만이 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 모두가 평생 하는 일이다. 그런 줄 모르고 살 뿐이다”라고 강조한다.

〈사이언스북스·1만6500원〉

모두 3부로 구성된 책에는 1부 ‘동물 본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수염세·창문세·조명세를 아시나요?

세금전쟁

하노 백·알로이스 프린츠 지음



“어미가 아이들을 팔고, 아비가 딸에게 매춘을 시켜 돈을 번다. 세리는 이토록 처참한 소득에도 가차 없이 세금을 떼어간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조시모스가 ‘히스토리아 노바(Historia Nova)’에 기록한 로마제국 세리의 행태를 비꼬는 글이다. 가혹한 세금은 그만큼 인간을 파멸로 몰아간다.

그러나 세금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더욱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국가 채무가 늘고 있는 오늘날, 세금은 중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금을 내고, 또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을까?

더러 세금은 부유층이나 고위 공직자를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금 축소 의혹은 단적인 예다. 그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적잖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가족 기업’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뉴스가 연일 지면을 장식한다.

이렇듯 세금의 이면에는 늘 ‘겉으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의 두뇌싸움이 존재한다. 오죽 하면 사람들은 탈세를 ‘국민 스포츠’라고 비아냥거리겠는가. 이렇듯 역사 이래로 세금을 둘러싸고 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 프랑스 사상이 불테르는 “세금에 관한 모든 특혜는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독일 시인 호프만 폰 팔러슬레벤은 “가장 큰 아가리와 가장

큰 위장을 가진 동물의 이름은 바다에선 상어이고, 땅에서는 국고”라고 했다.

동서고금의 세금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와 책으로 출간됐다. 프루트하임 대학 경제학 교수인 하노백과 베스트팔렌빌헬름스루터대학 재정학 교수인 알로이스 프린츠가 펴낸 ‘세금전쟁’은 ‘세금’에 드리워진 민낯을 파헤친다. 저자들은 “인생에선 오직 두 가지, 즉 죽음과 세금만이 확실하다”고 강조한다.

책에는 깜짝 놀랄 만한 기상천외한 세금들이 소개돼 있어 흥미를 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국가의 행태는 가히 창의적이다.

‘수염세’는 1699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것으로 수염을 기르려면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였다. ‘창문세’는 프랑스혁명 직후 출입구나 창문 개수에 따라 부과한 세금이다. 뻔히 보이는 건축양식을 과세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세리가 시민들의 실생활(재정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방증이다.

1933년 독일에서는 ‘조명세’를 도입했다. 같은 백열등이라도 촛대, 물방울 등

의 모양에 따라 세율이 달랐다. 당시 화물차 전조등, 충전용 랜턴 등 분류가 워낙 다양해 납세자들이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1100년대 영국에는 ‘살인세’에 관한 기록이 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할 태수가 영주에게 일정량의 공물을 바치게 한 것이다. 미해결 살인사건을 태수의 업무 태만으로 보고 물린 벌금이었다.

저자들은 세법이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지나치게 예외조항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내건 감세공약이 조세체계에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도.

그뿐 아니라, 탈세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잇을 만 하면 전제지는 부유층과 유명 연예인, 고위 관료들의 탈세 소식은 정직한 납세자들을 허탈하게 한다. 저자들은 조세 제도의 형평성뿐 아니라 자유와 복지,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납세 제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재승출판·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드라마·가요에 대한 자신만의 욕망과 취향은 ...



대중예술본색

이영미 지음

사람들의 드라마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이다. 재미있어서 꼭 빠져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시큰둥한 이도 있다. 어떤 이는 주인공의 행태에 욕을 하면서도 드라마를 보기도 한다. 가요에 대한 관점도 각기 다르다. 노래방에 가면 누구나 부르는 애창곡이 한곡 정도는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성향은 누구나 대중예술에 대해 자신만의 욕망과 취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대중예술 연구에 전착해온 이영미 성공회대 초빙교수가 ‘대중성’에 대한 의문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풀

어준 ‘대중예술본색’을 펴냈다. 책은 어떤 작품을 대중성이 있다고 하고, 대중은 왜 그것을 즐기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조점을 맞춘다.

저자는 대중예술이 지배예술문화이면서 서민예술문화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서민예술문화로서 지니는 대중성의 요체는 ‘서민대중의 경험, 욕구·욕망, 취향, 세계전유 방식, 예술적 관습’이라는 다섯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대중예술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숫자로 된 경제지표나 정치적 사전을 나열만 해서는 입체적으로 잘 그릴 수 없는, 그 세상을 살던 사람들의 기쁨과 절망, 분노와 희망 같은 마음속 풍경, 거기에 비친 당시의 생활 방식과 풍속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교육·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성 제국 눈먼 지식인들의 모습 풍자



목마른 여자들

베르나르 키리니 지음

에드거 앨런 포, 보르헤스, 마르셀 에메의 계보를 잇는 작가로 평가받는 베르나르 키리니의 첫 장편 ‘목마른 여자들’이 나왔다. 그의 소설은 환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사유,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필치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목마른 여자들’은 1970년 페미니즘 혁명으로 탄생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여성 제국으로 발을 들이게 된 프랑

스 지식인들의 여행담이다. 여성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도 외면하는 눈먼 지식인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한다.

소설 속 여성 제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다. 남자들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낄 만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 임신 단계에서부터 선별되는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더라도 죽임을 당하거나 공동육아소로 보내진다.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말살된 전체주의 디스토피아를 그렸다는 점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리게 한다. 여성해방을 통해 건설된 여성 제국에서 여성조차 자유롭지 못한 억압적인 세계는 디스토피아에 다를 아니다.

〈문학동네·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생 동반자가 들려주는 백남준의 삶과 사랑·예술



나의 사랑 백남준

구보타 시게코 남정호 지음

비디오아트 창조자이자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인 위대한 예술가 백남준. 그는 광기를 가진 문화 테러리스트이자 미래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직관력과 명석한 두뇌를 갖춘 선구자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항상 평가를 잃어버리고 홀리고 다니는 달렁이에 속세의 썬법에 약해 특하면 사기를 당하는 어수룩한 도련님이기도 했다.

2010년 출간했다가 절판된 뒤 백남준 추모 10주기를 기념해 재출간된 ‘나의 사랑 백남준’은 평생의 동반자이자 뮤즈인 아내 구보타 시게코가 들려주는 백남준의 삶과 사랑, 예술에 관한 가장 은밀하고 위대한 이야기다.

가난한 유학시절 젊은 예술가의 풋풋했던 첫사랑, 치기 어린 퍼포먼스, 세상을 뒤집어놓은 파격적인 전시의 뒷이야기, 우연을 인연으로 만든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 열여덟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세계를 떠돌며 유목민으로 살아온 백남준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드라마보다 극적인 삶이 미공개 사진 90여 컷과 함께 수록됐다.

〈아르테·1만8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샷강 다슬기 성업중!!

샷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담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갈증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담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춘담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조무침
*다슬기 영양 들솥밥

샷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신(D) 대산프리모